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예수 부활 대축일
제31권 22호(가해) 2011·4·24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묵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오로지 인간을 사랑한 결과였음을
저희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똑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막달레나가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리러 뛰어가던
그 벅찬 감격,
기쁨에 터질 것 같은 그 심장 고동소리에
처참한 죽음의 모든 표징은 사라졌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모든 것을 걸었던
그래서 모든 것을 되돌려 받는 이들만이 누리는
부활의 기쁨입니다.

이제 저희도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
그 기쁨을 안고 저희의 가정으로 향합니다.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러
힘차게 이웃으로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수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금 요 일	아 침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 일	아 침 미 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애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 요 일	성 시 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애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 요 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 요 일	유아세례(짝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 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애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울뜨레아 • 행사의 날 4째주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 후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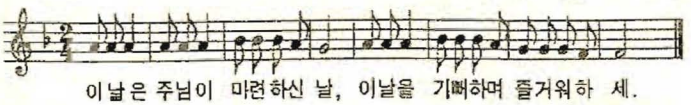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부활대축일 낮 미사	백삼위 전 교우들을 위한 미사(교중 미사)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Apostles) 10,34ㄱ.37ㄴ-43

화답송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제 2독서 콜로새서(Colossians) 3,1-4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의 파스카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복 음 요한(John) 20,1-9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제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부활 대축일 낮 미사
입당	162
봉헌	167,169
성체	306
파견	170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경축함

자식을 낳기 위해 산고를 치르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최선의 것을 전해 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있고,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있는 어머니들이다. 자신들이 사명을 실천하는 이 영웅적인 여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항상 그녀들을 지지해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매스 미디어에 의해서 조장되고 방송되는 문화적인 표본들은 모성애의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는다. 수많은 그리스도교 신자 부인들과 어머니들이 훌륭하게 증언했고 계속 거증하고 있는 충실성, 정결, 희생 등의 가치들은 발전과 현대성의 미명 아래 쓸모없는 것으로 제시된다. 우리는 영웅적인 어머니들의 불굴의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 하느님과 그분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생명의 희생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스도께서는 파스카의 신비 안에서 여러분이 그분께 드린 선물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진정,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제물로 바친 생명을 되돌려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야고 2,14)

▶생명의 복음을 위한 봉사

87).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생명에 대한 우리의 지지와 증진은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완수되어야 한다. 이 사랑의 봉사는 개인적인 증거,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 사회활동과 정치적인 투신 등을 통해서 표현된다.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를 이처럼 강하게 억누르고 있고, 흔히 우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현대에 이러한 사랑의 봉사는 특히 절박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필요성은 이미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갈라 5,6)에서 솟아 나오는 것이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훈계한다.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부르게 먹어라.'고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2,14-17).

사랑의 봉사를 할 때에 우리는 특별한 태도가 넘쳐야 하며, 탁월해야 한다. 우리는 타인을 돌보되, 마치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들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 양 해야 한다.(◆계속)

부활의 진정한 의미

내가 대신학교 4학년 때 아버지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학기말 시험기간 중 어느 날 아침식사 후 당시 1학년이던 동생과 함께 학장 신부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그동안 편찮으셨나? 조금 전에 선종하셨네." 그 순간 나의 두 발이 땅으로 푹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태연한 척하며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순간에도 아버지가 무척 아끼셨던 동생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안 된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맞이한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도 한동안 아버지와 자주 함께 갔던 장소를 찾곤 했었습니다. 대축일이면 고해성사를 보러 갔던 명동성당과 재미있는 영화를 보았던 극장들, 처음으로 소설책을 사주셨던 청계천의 헌책방, 자주 들렀던 빵집, 늘 볼거리가 많았던 충무로 골목을 갔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와 함께 앉았던 장충단 공원의 수표교 근처의 벤치에서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산소보다 추억이 서려 있는 장소에 가면 아버지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던 길에 신당동성당 입구에 새겨진 성경 말씀이 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요한 11,25)."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헤매고 다니니? 난 늘 네 곁에 있는데." 나는 그날 성당에 앉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부터 제 마음은 평화로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부활하셔서 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나의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게 한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부활의 믿음을 나에게 유산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활이신 주님을 믿고 살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마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소생하여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하느님의 영광 속에 들어 높여짐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죽음을 대하듯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체험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충실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눈에는 비록 실패로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불의와 악을 진리와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부활을 한껏 기뻐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희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부활성야미사	학생 미사	부활대축일미사
해설자	최진수 에우세비오	미사 없습니다.	채승희 에스더
제1독서자 제3독서자	유철희 바오로 유현자 안나		제1독서자 이민상 요한
제5독서자 제7독서자	박진수 스테파노 박혜경 레나타		제2독서자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사목회		토런스 남 1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윤희 스테파니아	신덕례 데레사	이진향 아녜스
제1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김교복 레오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2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겐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알렐루야, 알렐루야 ♬♬♬ ♬♬♬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Happy Easter! Alleluia,
교우 여러분 가정에 주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성주간과 부활 대축일 전례를 위해 수고해주신 본당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야외 십자가의 길' 조성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신자들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야외 십자가의 길'을 성모상 주변에 조성하여 본당의 날인 9월18일 경 봉헌할 예정입니다. 뜻있는 단체와 개인의 봉헌을 기다립니다.
- 단체봉헌 마감 : 6월30일
- 개인봉헌 : 단체봉헌 마감 후
- 문의 : 본당 신부님

◈ 부활맞이 가족사랑 3인 농구대회
- 일시 : 오늘 주일(24일 부활대축일) 오후 2시, 성당 농구장
- 게임방식 : 토너먼트, Half Court *게임시간 : 12분
- 팀구성 : 24팀
- 선수구성 : 가족단위 3명이 한팀(본당교우에 한함, 선수구성원 1명의 나이가 20세 이상 차이나야함)
- 상금 : 1등 $300, 2등 $200, 3등 $100

◈ 성경통독 '창세기'시작-새 수강생 초대합니다.
본당설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전신자 대상 신구약 성경통독이 4월28일(목)부터 창세기에 들어갑니다. 새수강생을 초대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 2회 강의
- 강사 : 이장환 마르띠노 본당 신부님
- 문의 : 최재은 베드로 종교교육분과장 ☎(310)694-4585

◈ 금요 평일 미사 : 29일부터 아침 8시30분으로 환원

◈ 요셉회, 야외14처 봉헌 기금마련 음식장터 안내
- 일시 : 4월30일 특전미사후, 5월1일 낮미사후 친교장
- 메뉴 : 점심식사 콩나물무국밥 특가 $1
  족발, 돼지갈비, 삼겹살, 굴파전, 신토불이'곡차'
* 요셉회 회원들이 자매님들의 도움으로 한국 고유의 음식을 정성드려 자신있게 만듭니다. 전신자들의 참여로 즐거운 음식장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문의 : 권태만 실베스텔 요셉회장 ☎(310)989-9077
  신중철 아브라함 요셉회총무 ☎(310)619-4343

◈ 본당설립 30주년 기념 구역대항 친선 탁구대회
- 일시 : 5월1일(주일)~15일(주일)
- 장소 : 친교장
- 경기방법 : 구역별 리그전- 단식, 복식, 혼합복식
- 참가구역 : 토런스 동, 서, 남, 북, 하버/카슨, PV 구역
- 선수구성 : 남녀 5명(여성 한분이상 꼭 참가)
- 준비물 : 구역별 탁구공과 탁구채
- 선수명단 제출 : 각 구역장이 4월30일까지 제출
- 문의 : 현석주 아오스딩 체육분과장 ☎(310)594-9472

◈ 성모성월, 성모님과 함께하는 미사 '성모의 밤'
- 일시 : 5월11일(수) 오후 7시30분, 성전
- 각 단체 및 개인의 꽃 봉헌이 있습니다.
  * 문의 : 최기남 야고보 꾸리아 단장 ☎(310)569-3940
- 준비물 : 묵주, 가급적 한복착용

◈ 부활축제 본당 엠마우스
- 일정 : 4월25일(월)~27일(수) 오후 6시까지, 사무실 휴무
- 27일(수) 저녁미사(7:30pm) 있습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4월24일(부활대축일) : 전신자들에게 부활대축일을 축하하는 친교점심으로 성모회가 소고기국밥을 준비합니다.
- 5월1일(주일) : 요셉회 야외14처조성 기금마련 음식장터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낙기 김병학 김영경 김우용 김재영 김정순 김진숙 김충섭 김현숙 나경흠 박봉성 박음전 소성덕 신순철 안민수 오영섭 원건희 육근주 이경용 이재용 이현주 이효세 익 명 임 순 임한나 정규숙 조준제 최영신 최희태 한연만 박제이콥 송마이클 합계 : $2,635
성전헌금	김낙기 김병학 김우용 김정순 김충섭 김현숙 나경흠 박봉성 소성덕 신순철 안민수 오영섭 원건희 이경용 이일길 이현주 이효세 익 명 임 순 임한나 정규숙 조준제 최영신 최희태 한연만 박제이콥 송마이클 합계 : $2,218
미사헌금 : $3,081	
감사헌금: 서예반 성낙호 박이레네 조은아	

공지사항

주일학교 소식

◈ 부활대축일- 오늘 주일학교 수업 없습니다.
(한국학교는 수업있습니다.)

◈ 부활절 은총시장 행사 도네이션 받습니다.
- 일시 : 주일학교 종업식날로 연기(6월12일 주일)
- 한국학교 은총시장도 같은 종업식날 열립니다.

◈ 고등부 견진성사
- 일정 : 5월 13일(오후 7시30분-9시): 리허설
  5월19일 (오후7시): Reflection
  5월20일(오후7시): 견진성사
- 장소 : St. Margaret Mary 본당(Lomita)

◈ 첫영성체 예식
- 준비모임 : 6월4일(토) 오후3시, 고해성사, 리허설
- 첫영성체 예식 : 6월5일(주일) 낮11시 미사중
- 대상 : 주일학교 2/3학년 이상 학생
- 신청마감 : 5월1일 * 신청비 : $10(사진, 초)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 서머캠프
- 일시 : 6월24~26일(금,토,일) 금요일 오전 9시 성당집합
- 대상 : 3학년~12학년
- 장소 : 카추마 레이크(샌타바바라), 텐트에서 숙식
- 준비물 : 슬리핑백, 수영복, 모자, 운동화, 슬리퍼,여벌옷, 재킷, 선블럭, Insect Repellent, 타월, 주일헌금
- 참가비 : $40(5월30일이후 신청 $60) *신청 : 주일학교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학년~12학년
- 일시 : 7월29일(금)~31일(주일), 금요일 낮12시 성당집합
- 참가비 : $185(5월30일 이후신청 $205) *접수: 주일학교
- 참고웹사이트: www.all4godcatholic.com

남가주 소식

◈ 제3회 남가주 청년연합 찬양수련회
- 일시 : 4월29일(금)~5월1일(주일)
- 주제 : "주님 저의 소리를 들으소서!"
- 장소 : PCCCI(빅베어 레이크)
- 대상 : 남가주 한인가톨릭청년
- 회비 : $110 * 문의 : ☎(714)200-9862 김정욱

◈ 예수후원회의 1일 영성 특강
- 주제 : * 하느님께 나아가는 세가지 여행
  * 기도란 무엇인가? *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 일시 : LA- 5월1일 오전 9시 성 아그네스 성당 회관
  오렌지- 4월30일 오전 9시 매리우드 센터
- 지도신부 : 정규한 레오 예수회 신부
- 참가비 $20(점심 포함), 문의:정 도로테아 (818)321-9505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최성자 카타리나 548-4645 4/8(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유선식 필립보 326-2184 4/9(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이병찬 안토니오 989-0366 4/16(토) 오후 6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4/24(일) 낮 12시30분 델손 팍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권영옥 루시아 720-2876 4/11(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현석주 아오스딩 433-9075 4/15(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안혜진 세레나 972-9193 4/13(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크리스티나 750-4051	송 마이클 850-2822 4/9(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박정희 마리아 800-3709 4/8(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주대종 다니엘 818-640-3656 4/16(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박종선 리비나 748-7323 4/9(토)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배진영 프란치스코 544-4807 4/16(토) 오후 6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유석영 레오 997-5388 4/9(토)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반나영 세실리아 293-5120 4/12(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 부활맞이 농구대회	대축일미사 후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2011년 부활 메시지

우리의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고통 중에 있는 분들과 우리 사회 곳곳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수난과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십니다.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 부활처럼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통해 인간의 역사와 삶의 끝은 죽음이 아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느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생명은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얻어주신 구원과 희생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인의 부활에 대한 희망이며 보증이 됩니다.(1코린 15,20-22)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며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을 극복한 부활의 기쁨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지극한 수난과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노력과 희생의 과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새 생명의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 먼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부활을 사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희망보다 절망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없지 않습니다. 세상 곳곳에는 하루를 멀다 하고 전쟁과 폭력이 그치지 않고, 재난과 재해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와 생명 경시 풍조는 점점 더 심해져서 인간성의 파괴라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게 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절제를 모르고 이기적인 안락과 편의를 추구하며 자연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환호하는 사이 사람들의 사이를 더 멀리 단절시키고 다양한 갈등과 격차는 커져만 갑니다.

우리 시대가 현재 맞닥뜨린 불행의 원인은 삶의 모든 것을 경제 중심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하느님이 계셔야하는 자리에 오히려 돈과 재물이 차지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시련이 크다 해도 정의와 진리, 그리고 사랑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오늘의 세상에서 해야 할 교회의 역할은 막중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이 일상생활 곧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신앙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비로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부조리와 악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사랑의 무기로 악의 세력에 거슬러 싸워야 합니다.(에페 6,12) 따라서 부활을 믿는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은 분명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로마 12,21)

그런데 교회가 말로만 믿음을 외치고 자신만의 이기적인 안위와 이익만을 꾀할 때 더 이상 교회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종교가 행복과 화해의 도구가 아니라 분열과 오히려 불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사회 일각의 지적을 깊이 반성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그만큼 아직도 세상은 교회와 신앙인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신앙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성령의 힘으로 변화되어 가정과 사회에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절망과 죽음의 어둠 속에 있지 않고 희망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에 주님 부활의 생명과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